

美 관세 대응, 무역흑자 폭 줄이기 3트랙 전략으로 시장·공급망 재편

中企연구원, 美관세 보고서 발표
수입확대·투자강화 등 3트랙 제시
수출 줄이고 수입 늘리는 전략 제안

中産 저가공세·우회 수출도 주의
원산지 검증·시장 다변화 등 필요

미국발 관세위기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기위해 미국에 대한 상품 수입 확대·수출 의존도 축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3-트랙(track)' 접근이 유효할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대비 ▲비관세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및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 모니터링 ▲한국 기업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 ▲미국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글로벌센터는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24일 내놨다. 중기연구원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발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등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의 경우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제한적이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고부가가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커 트럼프 관세로 철강 산업 위축시 연관 산업



지난 2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도 부품 국산화율이 내연기관(95%), 전기(82%), 수소(71%) 등을 중심으로 매우 높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5대 자동차 회사 부품 납품액만 약 165조원에 달하고 있는 등 관련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관세 전쟁에 따른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3-트랙'과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활용해 미국 산업계의 한국에 대한 수출 수요를 고려, 해당 시장 개방 확대시 영향이 적은 산업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상 미국 관세 뿐만 아니라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장·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선 민

관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 방안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모아 최적의 협상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 대응책으로는 모니터링 강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가격이나 국제 무역환경의 존도를 축소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관세 조치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한다"면서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경간 크로스 보더 M&A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D한국조선해양, 8분기 연속 '흑자'

1분기 영업이익 8600억 전년대비 436%↑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 등 주요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4일 HD한국조선해양은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6조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 당기순이익 6116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8%, 영업이익은 무려 436.3%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및 건조물량 증가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매출 3조8225억원, 영업이익 4337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도 각각 매출 1조9664억원과 1조1838억원, 영업이익 3659억원과 685억원을 기록

해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선박 엔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해 그룹 편입 후 시너지 효과를 본격 발휘하고 있다. 엔진 물량 확대, 생산 효율화 등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830억원, 영업이익은 64.4% 증가한 103억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조선 부문은 전반적인 업황 호조세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6%, 207.2% 늘어난 5조8451억원과 7814억원을 기록했다.

엔진기계 부문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이중연료 엔진 비중 확대, 엔진 가격 상승 및 인도 물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상승한 6672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103.3% 증가한 1543억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도 기존 물량에 대한 매출 인식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43.8% 상승한 1613억 원의 매출과 6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두산에너지빌리티, 가스터빈 공급망 강화

HD현대마린엔진과 기술개발 MOU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 가스터빈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스터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HD현대마린엔진과 가스터빈용 정밀주조 제작기술 개발 양해각서(MOU) 및 블레이드 소재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가스터빈용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품질 평가를 담당하고 HD현대마린엔진은 블레이드 정밀주조 소재 제작을 맡는다. 특히 두산에너지빌리티

는 이번 시제품 제작 계약을 통해 국내 공급사를 통한 가스터빈 부품 조달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87억달러(약 26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규모는 오는 2031년 227억달러(약 3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스터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가스터빈 공급망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그간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가스터빈 공급망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기부 “글로벌 딥테크 스타트업 키운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19개 확정
고위험·고성과 R&D에 민·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로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를 최종 확정했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역삼동 팀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고 신규 과제 19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기업이 고위험·고성과 연구개발(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팀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액체생검을 통한 암 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해 진단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AI 분야에서는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설루션 개발 등 2개 과제가 뽑혔다.

의료 현장에서 전문 의료진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론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 장비 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밖에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항공우주, 탄소중립 분야 10개 프로젝트가 추가됐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무한기술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中企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해법 모색

중기중앙회,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한전과 요금체계 합리화 논의 착수

중소기업계가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업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해법 모색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한국전력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에 처음 구성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유신하 이사장,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김광중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및 뿌리 제조업체 관계자, 한국전력 유동희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한국전력이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중소벤처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핵심인력 장기제직 사업과 뿌리산업 공동설비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간담에서는 ▲개폐기 PT(변압기) 납품시험 절차 및 기준 개선 ▲군산항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개발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화두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워 전기료 인상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선 요청사항으로 ▲기본요금 최대수요전력 기준 연간→분기별·월별 산정 ▲실제 전력수요에 맞춰 계절별(6·11월) 및 시간대별 요금(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